

의 학도로서

가져야할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테마스쿨

2nd Edition

목차

클래식을 듣다보니 빠져버릴지도

김재원

인공지능과 함께

박혜리

루가관 1열

신대희

<클래식을 듣다보니 빠져버릴지도>

김재원 기자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어렵지만 품위 있고, 분위기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클래식을 듣거나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힘든 의과대학 생활을 클래식을 통해 이겨내고 힐링하는 단체가 있다는데! 바로 <음악에 붙여> 의료인문 테마스쿨 조이다. 어딘가 왠지 모르게 품격 있어 보이는 이 조에 인터뷰를 가보았다.

시작부터 남다른 조였다. 강당에 모여서 각자 준비해온 클래식 곡을 하나씩 남 앞에서 직접 연주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연주의 첫 시작은 양재호 교수님이셨다. 쇼팽의 <Nocturne op.9, #1>를 피아노로 연주하셨다. 대체 언제 연습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연주하셨다. 이어 우리에게 ‘비창’으로 잘알려져 있는 베토벤의 <piano sonata #8 “pathetique” 2nd mov.>를 연주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 연습할 때 보다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긴장돼서 못 치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잘 치셨고 멋진 곡이었다. 연주에 감명을 받아 교수님께 피아노를 언제부터 치셨는지, 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여쭙보았다. 교수님께서서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싶었던 마음은 계속 있었다. 자녀들을 대학교에 다 보내고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치게 되었다.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유치원 학생들과 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생들이 나 보다 훨씬 잘쳐서 수모를 겪었다.”고 말씀해주셨다. 50대 중반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신 것도 놀라웠고 그 뒤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 것도 너무 존경스러웠다. 난 평소에 꾸준히 하는 무언가가 있는가를 생각해보았는데 상처만 남고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다음 순서는 김상경 학생이었다. 김상경 학생은 바흐의 <Minuet in G major, BWV Anh. 114>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다. 미뉴에트는 프랑스어로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 곡은 가수였던 아내를 위해 바흐가 작곡한 곡 중 하나라고 하여 기대가 되었다. 듣자마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와 매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김상경 학생은 긴장한 탓인지 평소 기량보다 연주를 못한거 같다고 했지만 훌륭한 연주였다. 양재호 교수님께서 원래 남들이 보는 앞에서 연주하면 평소보다 훨씬 못 친다면서 위로해주셨다. 이어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를 연주하였는데 바이올린으로 들으니 좀 더 애절한 느낌이 들어 매우 몰입할 수 있었다. 김상경 학생에게 특별히 바흐의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바흐의 곡을 많이 들은 영향도 있고, 악기자체가 고전적인 악기들이 많아서 좋아한다.”고 답했다. 양재호 교수님께서도 바흐를 좋아하

신다고 말하셨는데 옛날에 독일에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들었던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씀 하셨다.

마지막 순서는 송영준 학생의 차례였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musik>을 플룻으로 연주하였다. 세레나데는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예상 가능하듯이 주로 사랑에 관한 노래라고 하였다. 확실히 예전부터 악기를 연주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동아리로 인해 각성한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잘 연주를 했다. 송영준 학생이 연주한 곡은 모두 귀에 익은 곡들이었다. 대표적으로 <String Quartet No.5 in F Major Op.3, 2nd mvt.> 는 영어듣기 평가를 할 때 마다 귀에 지겹도록 들었던 노래였다. 고등학교 학생일 때는 듣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들으니까 순수하게 클래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신기했다. 송영준 학생은 처음으로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휴대폰 게임의 배경음악이 좋아서 조사해봤더니 바흐의 오케스트라를 편곡한 것이어서 라고 했다. 지루한 줄 만 알았던 클래식이 이렇게도 다가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었던 것이 내가 처음으로 클래식이 좋다고 느낀 계기도 게임 배경음악을 통해서 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클래식을 제일 잘 접하는 방법은 연주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나 게임, 혹은 만화에서 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 양재호 교수님 또한 어릴 때부터 만화같은 매체를 통해서 클래식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익힌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 배우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선 클래식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춘향전을 보듯이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이라고 한다. 일반인도 매우 전문적인 시각으로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들도 이 교실을 구성했다고 하셨다. 양재호 교수님께서서는 음악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클래식에 대해 말하면서 취미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하셨다. 이윤주 교수님께서서는 이번 교실을 통해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클래식이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다. 클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고 대중음악에 비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건 사실이다. 나의 경우만 봐도 지루하고 잘 때 틀어 놓고 자는 것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교실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곡 자체에만 집중해서 듣다보니 클래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심지어 곡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곡을 접하자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다. 공부에 지쳐 삭막한 의과대학 생활이 클래식에 의해 풍부해지고 위안이 된다면 분명 힘든 수업도, 어려운 시험도 좀 더 쉽게 이겨낼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이번 교실을 통해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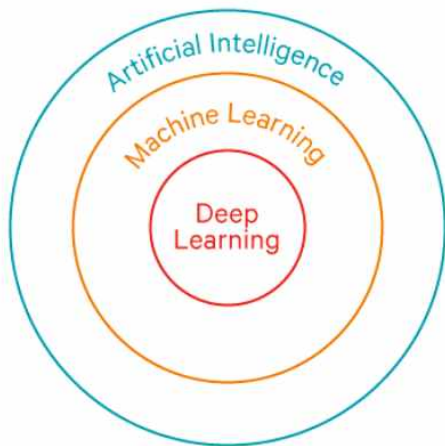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함께>

박혜리 기자

2016년,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의 수준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딥러닝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보았다. 이창형 교수님과 김기훈, 김송건, 은지환, 허준오 학생이 함께 하는 '딥러닝 시작하기'였다.

우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자.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공지능 없이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기능할 수 없다.

머신러닝은 인간 개입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 알고리즘을 참조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그 중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한계를 넘어 능력을 개선하고, 증진하고, 최적화할 능력을 얻게 되며 영향력의 범위도 확장된다. 그러나 머신러닝은 성공이 아닌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과정에서 만약 잘못 인식했다면, 시스템의 패턴 인식 기능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로부터 학습하며 정확도를 점점 높여간다. 즉, 정보의 학습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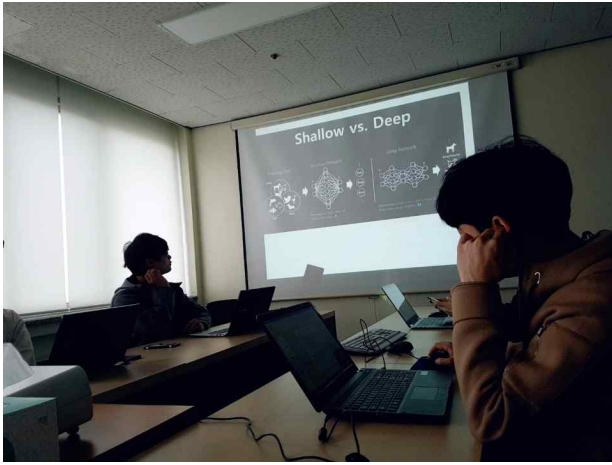
딥러닝은 알고리즘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머신러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컴퓨터의 지능을 한 차원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하며 대량의 데이터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심층신경망을 구현한다. 심층신경망의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 두뇌의 연결성을 모방해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 상관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인간의 도움 없이도 새롭게 발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는 다른 데이터 세트에 통찰력을 적용하게 된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모여서 보다 쉽고 효과적인 업무 완수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

계의 예측도 더 정확해진다. 즉, 딥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3가지 방법을 통해 학습을 스스로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4월 9일, 비가 내리던 날 라파엘관 기획부회의실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의 준비물은 노트북이었다. 이창형 교수님의 강의와 텐서플로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실습하는 것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서는 2017년부터 구글링을 통해 독학으로 이를 배우셨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노력하여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수님의 열의가 돋보였다. 교수님께서 관련 그래프나 식 등의 이론을 설명하시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학생들이 따라 입력하게 되었다. 이날은 함수식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지점을 구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학습 목표가 되었다. 우리의 예측과 실제 값의 차이가 없는 것이 원하는 결과라고 하셨다. 함수식도 쉽지 않았고, 생소한 도구를 이용하는 낯선 수업이었지만 조원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멀게 느껴졌는데, 이들과 함께 하면서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의 의학 지식 공부도 물론 중요하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공지능에 끌려다니는 의사가 아닌 그들의 도움을 받는, 또한 함께 하는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데 많은 발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루가관 1열>

16115401 신대희

2019년, 수많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시대이다. 글쓴이인 나는 영화시청을 자주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3~4편씩은 본다. 나조차도 3~4편은 시청하는데, 영화감상이 취미인 사람들은 한 달에 5편 이상씩 보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리뷰하거나 추천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영화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봤는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대부분 교훈이 없는 단순 코믹물이나 액션물을 봐왔다. 또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도 영화가 주는 교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영화를 좀 더 재밌게 감상하고 그에 따른 활발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모습을 취재하고 싶어 이숙희 교수님과 강유정, 공덕규, 박지성, 정지환, 한수인 학생이 모인 강유정 학생의 자취방에 방문하게 되었다.



루가관 1열에서는 한 사람이 주제를 정해서 영화의 줄거리와 자신만의 명장면, 교훈 등에 대해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평소에는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지만, 강유정 학생이 맡은 주제가 '음악'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나온 OST를 좀 더 큰소리로 듣고자 본인의 자취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강유정 학생이 소개 해준 영화는 총 3편으로, **Sing Street**, **Star is born**, **위대한 쇼맨**이었다. Sing

street는 부모님의 이혼 위기와 학급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남주인공이, 모델일을 하는 여주인공을 만나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신의 밴드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남주인공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Star is born 예선 무명의 가수였던 여주인공에게 유명 락밴드 보컬인 남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순회공연에 따라 나서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남주인공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반면 여주인공은 계속 승승장구하여 그레미 어워드 대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그 간에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간의 갈등과 대화,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게 된다. 위대한 쇼맨은 모임 시간 관계상 줄거리를 파악할 만큼 많이 보진 못하였지만 밝은 분위기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강유정 학생이 뽑은 영화 3편의 공통점은 3개 영화의 OST가 모두 ‘이상을 좇는다’는 것이다.



(중간중간 조원들에게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강유정 학생)

강유정 학생은 이 세 편의 영화의 줄거리를 중간중간 설명하며, 영화에 나온 OST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강유정 학생은 Sing street에 나온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 제일 좋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주인공에게 바치는 남주인공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낭만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의 영화를 시청한 후에, 각자 조원들과 교수님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주제나 장면에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 에피소드들을 대화하기 시작했다. 영화 Sing street에서 묵묵히 동생을 응원해주는 남주인공의 형을 통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는데, 교수님께서도 2살 오빠가 있는데 평소엔 서로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남남같은 관계지만 나중에 가보니 결국 남는 건 혈육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다. Star is born에선 자살을 택한 남주인공의 마음, 그리고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각자가 설명했다. 정지환 학생은 자살은 안락사랑 비슷한데, 안락사는 찬반이 팽팽하나 자살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 둘 다 죽음을 원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의문점을 제시했고 공덕규 학생은 자살과 안락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안락사는 미래가 없지만 자살의 경우,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대화를 하고 상담하면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만의 해답을 내놓았다. 이러한 묻고 답함을 통해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내 스스로의 자아성찰과 타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루가관 1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모임을 주도하시기 보단 학생들과 함께 조원의 발표를 듣고 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하셔서 멤버 중 한명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신 것이다. 이 덕분에 학생들의 발표 스타일이 모두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며 색다른 맛을 보여줬으며, 학생들 또한 토론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한다. 또한 교수님께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애칭을 붙이셨는데, 기억에 남는 애칭은 한수인 학생의 베이비, 박지성 학생의 캡틴 박이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부담감을 덜고 서로 친근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취재를 통해 나 또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영화를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Youtube에 있는 영화 리뷰 채널을 통해 장르의 맛보기, 식견 넓히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각 영화가 꿰뚫고 있는 주제나 클리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좋으니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단 생각도 들었다. 여러분도 다음 주말에 팝콘 한 봉지 들고 영화 한편 보러가는 것은 어떨까.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